

# 취·창업 지원 '시늉만'...청년 없는 광주 '청년공간'

### '청년와락' 등 지자체 차원 운영 12곳...홍보·관리 부실에 이용률 저조 위탁 운영 한계로 개소·폐소 반복 악순환...지속적 예산 지원 등 필요

광주시와 지자체가 지역 청년의 취업·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공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점차 청년에게 외면받고 있다.

26일 광주시와 5개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시 청년 공간은 광주청년센터(동구), 토닥토닥 청년일자리 카페(서구), 청년와락(남구), 광주북구청년센터 청춘이랑(북구), 청청플랫폼(광산구) 등 12곳에 달한다.

광주일보 취재진 지난 23일 찾은 광주시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청년와락'은 청년 거점공간이라는 말이 무색했다. 이날 오전 이 공간을 찾은 지역 청년은 단 한명도 없었다.

청년와락은 광주시 남구가 지난 2018년 청년 자치공간, 협업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마련한 공간이다.

각종 청년 대상 특강이 열리는 것은 물론 세미나나 수업을 위한 공간을 대여해주고, 누구라도 들러서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등 카페처럼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운영 6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 공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500여m 떨어진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책과 노트북을 펴고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이 북적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년와락 관리인은 "공간을 아는 사람들은 재방문해서 잘 이용하지만, 대부분 공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청년와락을 방문한 지역 청년들은 지난 2021년 1167명, 2022년 1206명, 2023년 1039명이다. 올해 이용객은 210명에 불과했다. 일요일과 월요일 휴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4~5명만이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공간 대여 또한 2021년 23건, 2022년 17건, 2023년 30건, 2024년 현재까지 3건으로 한 달 평균 1~2건의 대여가 진행되고 있다.

남구는 청년와락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포인트제도를 운영하며 프로그램 참여를 인증하거나 게시물을 공유하면 5000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지만, 올해 지급된 건수는 '0'건이다.

청년와락 인근 카페에서 취업준비중인 최정후(여·25)씨는 "그런 공간이 있는 줄도 몰랐다. 카페에서 장시간 공부하는 건 눈치보이고, 스터디카페는 비용이 부담되는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면 좋겠다"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건 일회성 특강이 대부분이라 별로 도움이 안되는 것 같아 아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런 실정에도 남구는 4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광주시 남구 백운동에 위치한 청년거점공간 '청년와락'에 지난 23일 오전 방문객이 한명도 없어 텅빈어 있다.

백운동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청년복합플랫폼)'를 내년 중순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청년와락도 이곳으로 옮겨가 본격적으로 활성화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속적인 예산 지원과 홍보·관리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6년 광주시가 고용노동부 혁신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마련한 '청년Job희망팩토리'는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6년여 만에 운영이 중단됐다.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자기소개서 첨삭, 직업 상담 등을 제공해 청년들의 호평을 받았음에도 예산 때문에 문을 닫았다.

1년여가 지난 올해 4월부터 유사한 기관인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이 고용노동부 청년성장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서구와 동구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12월 지원이 끊길 예정이어서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청년공간으로서 대부분 유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운영 콘텐츠가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청춘발산공작소'는 변화하는 취업 트렌드에 대응하겠다며 VR 면접 체험 및 AI 역량검사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각 대학에서도 제공하고 있어 청년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갑다정 광주청년유니온은 위원장은 "청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간 갯수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청년센터, 청년공간은 단순한 공간대여를 넘어 고립청년, 청년빈곤과 같은 다양한 청년문제를 포괄하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자체의 직영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사진=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삭감 임금 지급 소송 판결 2제

### 한빛원전 수동정지 사고 책임자 임금 삭감 정당

영광 한빛원전 1호기가 열출력 급증으로 수동 정지한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가 일부 무죄판결을 근거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철)은 한빛원전 전 발전팀장 A씨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한빛 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발전팀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A씨의 지시·감독으로 원자로조종사 면허

가 없는 계속제어팀 주임인 B씨가 원자로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제어봉을 조작해 1호기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다.

A씨는 이 사고에 따라 1차 직위해제 돼 삭감된 임금을 받았다.

수사결과 A씨는 안전을 위한 대응도 계산을 하지 않았음에도 "반응도를 계산해 제어봉 인출을 승인했다"며 허위 보고하고 운영 기술 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기소돼 2차 직위해제 조치를 받고 임금도 추가 감액됐다.

이후 A씨는 원자력안전법위반 재판에서 허위 보고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운영 기술 지침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운영기술지침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직위해제로 인해 삭감된 임금 3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사유가 무죄판결을 받은 운영기술지침 위반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담당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책임(인사 규정상 선서 및 서약서)도 있어 직위 해제가 된 것"이라며 "허위 보고 사실이 확인돼 A씨가 정식 기소됐고 유죄 판결이 확정돼 기소로 인한 2차 직위해제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선박 파개비 제거작업 중 사망 잠수사 유가족 장례 미루고 원청·하청업체 중대재해법 고소

선박 하부에서 파개비 제거작업을 하다 숨진 잠수사의 유족이 장례를 미루고 원청인 HD현대삼호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26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에 따르면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고용노동청에 HD현대삼호와 하청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한다.

유가족과 노조는 이들 업체가 지난 9일 잠수사 A(22)씨가 선박 하부에서 파개비 제거작업을 하다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씨가 잠수 작업을 할 때 하청업체가 감시인 2명을 배치해야 함에도 1명만 배치했고, 통신장치나 신호 받침도 없이 작업을 하게 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조작업에 30여명이 걸리는 등 골든 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선박배치는 전적으로 원청의 관리영역인데 사고 당시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선박 2척을 이중 계류해 놓아 구조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고도 지적했다.

유가족과 노조측은 "원청인 HD현대삼호는 도급계약을 핑계로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유가족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있는 사고 없이는 A씨의 장례를 치를수 없다고 주장하며 17일째 장례를 미루고 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임금피크 부당" 화순탄광 퇴직자 33명 패소

118년 만에 문을 닫은 화순광업소(화순탄광) 광부들이 임금피크 적용이 부당하다며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화순광업소 퇴직자 33명이 대한석탄광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한석탄광사는 지난 2016년부터 정년을 기존

59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일정 부분 조정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후 대한석탄광사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생산량을 28%가량 줄이고, 근무 인원을 350명 이상 감원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해 2018년 3월부터 퇴직 희망 신청을 받았다.

당시 퇴직한 원고들은 임금피크제의 임금을 기

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됐다.

이에 원고들은 임금피크제가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규정이라는 점과 임금피크제가 근로자 개별의 동의 없이 도입됐다는 점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015년 노조와 합의해 임금피크를 도입한 만큼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었다"며 "연령 차별 주장도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로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심한 악취" 신고 문 열어보니  
홀로 살던 70대 숨진 채 발견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던 70대 남성이 숨진 후 며칠이 지나 발견됐다. 25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0분께 순천시 풍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심한 악취가 난다"는 이웃의 신고에 아파트 경비원이 문을 열어보면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족과 떨어져 이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외상 등 범죄의혹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된 상황이고 있던 점에서 숨진지 며칠이 지난 것으로 보고있다.

/장혜원 기자 hey1@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창호(샷시)교체